



세계 각국 안전관리 제도 파악 국제경쟁력 갖춰야

(사)한국농약과학회(회장 홍무기)는 1997년 작물보호와 관련하여 농약의 개발 및 관리, 병해충 및 잡초의 방제 그리고 잔류독성 등 제 분야의 학술발전과 기술 개발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 간의 학술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정회원은 617명으로 농약관련 20개 대학, 농약제조업체 31개소, 연구소 12개소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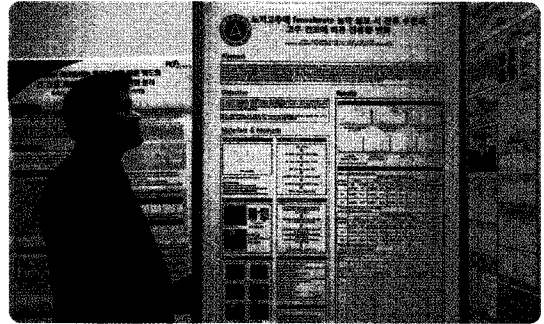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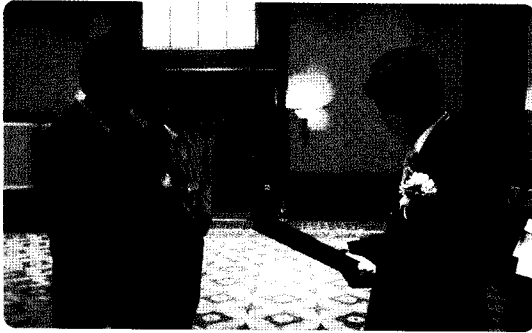
한국농약과학회는 농약관련 독성, 잔류, 식품안전성, 개발관리, 위해성평가, 병해충·잡초방제, 생물농약, 저항성 등 종합적인 분야를 다루는 학회이다. 특히 농약 제조업체와 연구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점이 타학회와 차별화가 되는 점이다.

아울러 매년 분기별로 농약연구 관련 논문 60편 등을 출판하고 있는 KSCI학회로서 학문과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연간 2회 연구학술발표회 및 간담회 개최하며, 매년 OECD 등 국제기구와 선진국 농약책임자 등을 초청하여 국제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 계기 마련

한국농약과학회는 농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세계 각국이 농



식품의 안전관리제도를 정비하고 수출입 농산물에 대한 검역을 더욱 강화되고 있는 현실과, 수출입 교역국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정보교류와 공유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중요성을 인지하여 지난 11월 3~4일까지 이틀동안 원주 오크밸리에서 '2011 국제심포지엄 및 추계학술대회' 를 개최했다.

35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룬 가운데 「수출입 농산물 안전관리」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 홍무기 회장(농촌진흥청 농산물안전성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수출입 농산물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국의 농약안전관리 체계를 이해하고 농약의 위해성평가, 사용, 등록, 기준설정 등 농약에 관한 다양한 정보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 농·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첫날 심포지엄에서는 허장현 교수(강원대학교)의 진행으로 총 2부에 나뉘어 주제발표가 있었다. 제1부는 심재한 교수(전남대학교)가 좌장을 맡았으며 제1주제발표자로 나선 홍기정 팀장(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이 「외래식물병해충과 생물안전」에 대해, Mitsue Ota 과장(일본 후생노동성)은 「일본 수입농식품 위생안전 검증절



차」대해, 제3주제 발표자인 나승렬 원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의 농산물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또 제2부는 이영득 교수(대구대학교)가 좌장을 맡았으며 제4주제발표자인 Rajumati Bhula 국장(호주 APVMA)이「수출입 농식품에 대한 호주의 잔류농약 관리제도」에 대해, 제5주제발표자인 Lois Rossi(미국 EPA)는 「미국의 농산물중 잔류농약 관리제도」에 대해, 마지막발표자인 Ricky Ho 총괄사장(싱가폴 Bayer)은 「아시아지역 MRL 요약 및 대만의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주제발표 중 일본, 호주, 미국 등 각 나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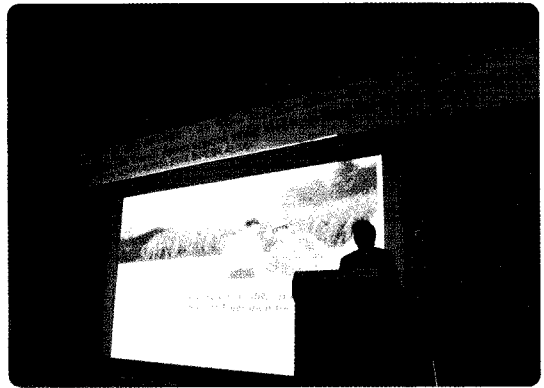


안전관리에 대한 주요내용 다음과 같다.

일본은 매년 식품위생법 제 23조에 따라 후생노동성이 수입식품 안전관리계획과 안전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수입농식품 위생 안전 검증은 3단계로서, 즉 농산물 수출국 현지/일본 수입검역 시점/일본 국내유통 과정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입검역시 500여 농약성분에 대해 검사를 하고 있다.

호주는 앞서 발표한 일본의 경우와 달리 원예축산물을 포함한 주요 농식품 수출국으로서 농약관리체계의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수출쟁점 대응분야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농약안전관리평가는 인체, 환경, 농작업자 및 농식품 잔류량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농약 및 동물약품관리법에 따라 수행되고 있다.

미국은 현재 등록된 농약성분만 1100여종, 등록농약수로는 18000종에 이르며, 이에 따른 농작물 잔류허용기준(MRL) 설정수도 11000건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량의 정보가 관리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 미등록 농약의 경우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농작물의 경우 개별 MRL설정을 위한 노



력을 줄이고자 1962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작물 Grouping제도를 운영중에 있다.

국민의 안전한먹거리제공에 일조

홍무기 회장은 오랫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의 잔류농약을 비롯한 중금속,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연구, 관리업무를 쌓은 식품 안전성 전문가로서 이번 국제심포지엄의 주요 성과에 대해 “농산물의 국제교역시 문제가 되는 잔류농약 문제를 조명하고 국내 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일조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홍회장은 현재 국내 농산물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국내 농산물의 잔류농약의 관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관여하고 있는데, 관련기관간 협조체제를 유지하여만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며 안전성 향상을 방안에 대해서는 “수입 농산물의 검역과 수출 농산물의 잔류는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며, 금후 관련기관간 업무 분담과 협조가 관건이 될것이다”라고 전했다. ㉞

홍무기 회장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장)



과학만이 안정적 · 안전한 먹거리 생산

■ **지난 7월 19일 한국농약과학회가 사단법인으로 전환되었는데 그 의미와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요?**

2011년 7월 한국농약과학회가 사단법인으로 농촌진흥청에 등재됨으로서 농약의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분야 활성화에 보다 크게 기여할수 있게 되었으며 회원이 지불하는 회비와 관련 비용의 수지에 대한 투명한 절차가 추가되었고, 더욱 더 짜임새 있는 학회운영으로 회원의 학술활동 지원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학회의 활성화는 무엇보다 산업계의 활발한 연구 참여를 우선과제로 꼽을수 있는데 요. 그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한국 농약과학회의 활성화는 관련 분야의 학문연구가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 농약관련 대학의 연구가 가장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 후부터는 농약관련 제조사와 연구소가 참여하는 '농약생물활성연구회', '농약분석협회의 회', '잔류농약연구회', '농약독성연구회'가 적극적으로 학회에 참여할수 있도록 독려 하며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는 농산물 가격폭등으로 이어져 먹거리 수급의 불안감을 양상시키고 있습니다.**

농약은 식량안보측면과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있어 매우 중요한 농자재 입니다. 농약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지요?

농약은 농업생산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기자재로서 식량안보 뿐만 아니라 안정적 식량공급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농약과학회에서는 과학적인 지식을 동원하여 안정적인 식량생산 뿐만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향후 학회운영 방안에 대해 밝혀주시지요?**

한국농약과학회는 금후 국내학자 뿐만 아니라 외국 학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OECD, Codex 등 국제기구의 행사를 유치하여 국제학회로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